



# 원주민 이야기

제163호

Since 2012

파생터 집영

06



2026년 3월호

노거수 아래, 봄이 오는 원수선마을

수봉산 다섯 봉우리를 병풍 삼은 비봉면 원수선마을. 거대한 부부 느티 나무를 벗 삼아 살아 살아온 어르신들부터 농사짓고 생태놀이터 가꾸는 주민들까지 각자의 일상이 분주하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이들을 만나왔다.

사진설명: 원수선마을 주민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함께 점심을 나누는 뒤 마을회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 기사 2-8면

- 용진음 정월대보름 한마당 ..... 9P
- 삶의풍경 박영진 이야기 ..... 10P
- 제24회 심레델기대축제 ..... 14P
- 원주청년중합지원센터 ..... 15P



## 꽃지짐 부치던 회꼬골 추억은 보름으로 이어지네

### 회돌아 마을 한 바퀴

비봉면 원수선마을의 3월은 자박자박 흙을 밟는 소리로 시작된다.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풀리고 주민들은 축사를 정비하며 한 해 농사 준비에 나섰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해마다 이맘때면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레 밭걸음을 모으는 곳이 있는데 마을 입구에 나란히 선 두 그루의 노거수, 이른바 '부부 느티나무'다. 오랜 세월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온 수호신목 아래에서 주민들은 바쁜 와중에도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이면 함께 모여 따뜻한 밥상을 나누며 한 해의 무탈을 기원한다.

### 부부 느티나무와 회꼬골에 서린 전통

마을 초입에서 객을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25m 높이의 웅장한 '부부 느티나무'다.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서로를 감싸듯 뿌리를 내린 모습은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낸 마을의 시간을 닮았다. 이 나무는 단순한 경관을 넘어 원수선마을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다. 오랜 세월 마을의 안녕을 지켜온 수호신목 아래에서는 과거 보름과 칠석이면 제를 올리고 풍물을 치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고, 정월대보름이면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한 해의 무탈과 풍년을 기원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처럼 마을은 예부터 함께 모이고 어울리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문화류씨 집성촌인 이곳에는 열녀비와 공적비가 세워질 만큼 예와 덕이 밝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웃 간 정이 두터워 절기마다 어울려 노는 행사도 잦았다. 특히 노말례(94) 어르신은 "마을 뒤편 다섯 봉우리 중 가운데 '회꼬골' 골짜기가 가장 놀기 좋았다"고 웃었다.

"삼월 삼짇날이면 마을 여자들이 회꼬골에 올라 꽃지짐 부치면서 봄놀이를 즐겼지. 단오에는 등구나마에 매단 그네를 타면서 내기도 했어. 그네를 힘껏 굴러서 높이 올라갔을 때 입으로 나뭇잎을 물고 내려오는 거야. 타는 사람, 보는 사람도 아찔한 묘미가 있었지."



원수선마을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준 부부 느티나무. 나이는 약 230여 년, 높이는 약 25m

원수선마을  
비봉면

93년도 어버이날 행사 지금은 폐교된 수선초 운동장에서 열렸다.

사진 유홍석 이장 제공

다섯 봉우리 아래 터 잡은 '물골안'

수봉산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산자락이 부소산을 기점으로 각각 성퇴산과 반곡산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천연 성벽을 이룬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이 안에 자리한 수선리는 예부터 이곳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안쪽'이라 하여 '물골안'이라 불렀는데, 이는 수선리 전체를 아우르는 정겨운 전래지명이다. 수선리의 으뜸 마을 이름인 '수선'이 법정리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마을 이름 앞에 원(元)을 붙여 원수선마을이 되었다.

뒤편으로 다섯 개의 봉우리를 거느린 원수선마을은 예전에 초입의 '관동(갓골)'과 중심부 '수선(물골안)'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마을 입구가 된 관동은 봉우리 모양의 갓을 쓴 것 같다는 '관모봉' 아래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주민들의 설명을 새기며 마을 곳곳을 돌아보니 이곳을 이루는 산세의 모양과 흐르는 물의 기운이 지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부느티나무 아래 어버이날 행사 모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 나무 아래서 잔치를 했다.

찰밥 한 그릇에 담긴 이웃 사랑

회꼬골의 꽃지짐과 등구나무 그네 타기는 이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은 정월대보름의 밥상 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마을회관은 홍보순부녀회장의 지휘 아래 잔칫집 같은 활기로 가득 찼다. 김길에 어르신이 고소한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 미역국을 끓이는 사이, 한쪽에서는 흥 부녀회장이 갓 무쳐낸 잡채 위로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했다.

"간이 아주 딱 맞네!" 둥근 식탁에 둘러앉은 노말레, 유정순, 김길에, 국종순 어르신이 젓가락을 들고 미리 맛본 잡채 한입에 입을 모아 칭찬을 건넸다.

정오가 다가오자 스무 명 남짓한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며 회관 방안은 금세 북적였다. 누구는 찰밥을 푸고, 누구는 뜨끈한 국을 옮기며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다.

길에 어르신은 "보름엔 역시 은행, 밤, 콩 넣고 소금 간 해서 찌낸 찰밥을 먹어야지. 예전처럼 시루 가득 찌서 이웃과 나누긴 힘들어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먹으니 아주 맛있네."라며 환하게 웃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마을 행사는 줄었지만, 보름날 마주 앉아 나누는 찰밥 한 그릇은 원수선마을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전통이다. 🍲



2026년 정월대보름 식사 마을회관에 모여 찰밥과 나물을 나누는 마을사람들



## 오래된 느티나무 친구 삼아 굵어치는 세월 보냈지

### 노말레 어르신

#### “책임으로 지켜낸 한평생”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노말레(94) 어르신의 뒤를 따랐다. 초봄의 따스한 햇볕과 아직 서늘한 냉기를 품은 바람이 공존하는 오후, 실버카를 밀며 천천히 걷는 어르신의 발치에는 동네 강아지들이 장난스럽게 얼쩡거린다. 그 평화로운 산책 풍경을 보고 있자니 보는 이의 마음마저 절로 느긋해진다.

말레 어르신은 울소리 친정에서 사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인 스물넷에 이곳 수선리로 시집오며 어르신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빨래며 음식이며 해본 적 없던 그는 시누이 넷과 시부모님을 모시는 대가족의 며느리가 되어 낯선 살림을 시작했다.

다섯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일했다. 상추 작목이 들어온 뒤로는 밤낮없이 상추를 따서 판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다. 그렇게 모은 귀한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마침내 집 근처에 밭 두 마지기를 직접 장만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와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를 일흔넷까지 지성으로 봉양한 것도 오롯이 어르신의 몫이었다. 고된 세월이었지만 원망 대신 책임을 다했다. 그 마음을 아는지, 객지에 나간 시누이들은 지금도 수시로 말레 어르신의 안부를 물으며 친동기 이상의 우애를 나누고 있다.

“칠석날이면 느티나무 아래서 국수 삶아 먹고 풍물 치며 참 재미있게 놀았는데, 이젠 동네 양반들이 많이 떠나 적적해.”

대문 앞에 앉아 맞은편 느티나무를 보며 옛 추억을 회상하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답답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살아온 이야기 끝에는 “남이 하란 대로 하지 말고, 찬찬히 자기 생각을 혀.”라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도 덧붙였다.

언제나 흰 단발을 잘 빗어 넘기고, 편까지 쫓은 단정한 차림새의 노말레 어르신. 모진 풍파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모습이 눈앞의 느티나무와 닮아 있었다.



산책을 마친 노말레 어르신이 대문 앞에 앉아 마을 느티나무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다리

### 유홍석 이장

유홍석(61) 이장은 2008년 첫 이장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연임하며 올해로 8년째 원수선마을을 살피고 있다. 내년이면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 나고 자란 고향과 이웃이 좋아 시작한 봉사 이기에 끝까지 진심을 다하려 한다.

#### » 현재 원수선마을의 현황이 궁금하다

우리 마을은 예부터 문화류씨 집성촌으로, 2017년까지만 해도 75명 정도가 복적이며 살았다. 지금은 실거주 주민이 45명 정도로 줄었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다. 성취산과 반곡산이 감싸 안은 지형 덕에 안온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지만, 서로 안부를 물으며 끈끈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 » 원수선마을만의 자랑거리나 특산물이 있다면

과거에는 벼농사가 주를 이뤘는데 상추 작목이 들어온 뒤로는 상추 농사를 주로 짓는다. 또 화산, 고산과 가까워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도 많다. 우리 마을의 진짜 자랑은 ‘밥정’이다. 예전에 생일만 되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대접하곤 했다. 지금도 정월대보름엔 찰밥을, 칠석날엔 국수를 삶아 먹으며 일 년에 세 번은 꼭 모든 주민이 한 상에 둘러앉는다.

## “열 일곱에 시집 와 일곱 남매 키웠지”



마당 앞에서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류점순 어르신

### 류점순 어르신

#### “자식들 잘 사는 게 제일 좋아”

원수선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란히 선 두 그루의 노거수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이 나무 아래에서 류점순(92) 어르신의 삶도 함께 흘러왔다. 열일곱에 이 마을로 시집온 류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일곱 남매를 키웠다. 남편은 일흔을 조금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전까지 두 사람은 논밭을 일구며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다. 어르신은 마을의 옛 풍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마을에 한 사십 가구는 살았어. 집집마다 스무 마지기쯤 벼농사를 지었고 고추도 따다 팔며 살림을 했지. 읍내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려면 한나절이 걸리던 때라 손님이 찾아오면 그냥 보내질 못했어. 밥을 지어 같이 먹고 쉬어가게 했지. 젊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음식도 하고 같이 나눠 먹곤 했어. 농사일로 바빠도 집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밥상에서 마을 이야기가 오갔지.”

이어 어르신은 마을에 오래 서 있는 노거수 이야기를 꺼냈다.

“마을 입구에 노거수도 옛날부터 우리 마을 상징 같은 거였어. 보름이나 칠석이면 나무 아래 모여 제도 지내고 풍물도 치고 그랬지. 정월대보름에는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눠 먹으면서 한 해 무탈하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곤 했어.”

지금은 나이가 들어 큰 농사는 짓지 않는다. 마당 한 켠 텃밭에 상추와 쪽파를 조금씩 심어 가꾸는 정도다. 예전에는 검은콩을 심어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힘에 부친다며 주변에서 말린다.

자식들은 포항과 성남, 서울에 흩어져 살아 명절 때나 한 번씩 마을을 찾는다. 막내딸도 어느덧 환갑을 맞을 나이가 됐다.

“자주 못 봐서 요새는 좀 외롭지. 그래도 자식들 잘 사는 게 제일 좋지.”

#### » 이장님이 기억하시는 옛 모습과 달라진 점은

상여 문화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고등학생 때 일손이 부족해 친구 아버지 상여를 맺던 기억이 생생하다. 소리꾼을 포함해 9명에서 11명 정도가 줄을 맞추고, 손자가 혼백을 모시면 그 뒤를 상여와 상주, 조문객이 따르던 장엄한 행렬은 이제 보기 힘든 풍경이 됐다. 80년대 후반부터 점차 사라지며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다.

#### » 남은 임기 동안 이장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장을 맡는 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결하려 많은 사업을 해왔다. 그 과정을 믿고 묵묵히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좋아서 한 봉사지만, 내년 마지막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거창한 소망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얼굴 보며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유홍석 이장

# 집집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작은 소리에도 귀 쫑긋

## 물골안 마을지킴이

원수선마을은 산자락이 겹겹이 둘러싼 골짜기 안에 자리한 마을이다. 수봉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마을 뒤편을 감싸고 있어 예부터 '물골안'이라 불릴 만큼 물길과 산세가 가까운 곳이다. 산이 가까운 만큼 산짐승도 자주 내려온다. 밤이 되면 고라니나 멧돼지가 밭 주변을 서성이는 일이 때때로 있어 원수선마을 집집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 낮에는 마당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낯선 기척이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짖어대며 마을에 인기척을 알린다.



흰둥이  
4살 ♀

마을 한 켠에서 듬직하게 서 있는 흰둥이 마당 지킴이 1등이다. 낯선 이를 보면 큰 목소리로 경계심을 보여준다.



풍신  
7살 ♀

원수선마을 마을지킴이 풍신은 오래전부터 집을 지켜온 베테랑이다. 낯선 기척이 들리면 주저 없이 짖어대며 마을에 알린다.



거위  
3마리

마을 곳곳에서 주위를 살피는 거위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꺹꺹 울어 마을 분위기를 깨운다.

복실  
2개월 ♂

흰둥이의 아들, 아직 작지만 장난기 가득한 마을 새내기다. 덩치는 작아도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마을을 익힌다.



풍신의 막내 아들, 아직 어린 강아지지만 엄마를 따라 마당을 살핀다. 조금씩 용감함을 배워가는 중이다.



풍돌  
2개월 ♂

## 일과 배움 사이 균형 잡으며 “토마토처럼 잘 익어가는 알찬 하루”



홍보순 씨가 방울토마토 즙을 끓이고 있다.

### 홍보순 부녀회장

정월대보름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4일 오후, 원수선마을회관을 지나는 길 곳곳 향에 이끌려 다다른 곳에 홍보순(61) 부녀회장이 있었다. 잘 익은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세척하고 꼭지를 하나하나 떼어내는 작업 중이었다. 손질을 마친 토마토를 통째로 갈아 솥에 붓고, 잘 저어주다가 40여 분간 펄펄 끓여내는 손길에 17년 차 농산물가공 공장 주인다운 노련함이 묻어난다. 별도의 첨가물 없이 원재료만 듬뿍 들어가 소화가 편하다는 이 토마토즙은 한번 맛본 지인들이 잊지 않고 다시 찾는 귀한 특산물이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그의 웃음 섞인 말은 엄살이 아니다. 동절기에는 아침 7시, 여름철엔 새벽 5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보순 씨의 일상은 그야말로 설 틈이 없다. 상추 하우스 10동에 토마토 하우스 2동까지 돌보고, 양파와 마늘, 생강, 대추 농사까지 짓다 보면 해가 지기 일쑤다. 부녀회장이라는 직함까지 더해져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살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

다.

하지만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스스로를 돌보는 즐거움을 안다. 작년에는 바느질과 의류 리폼을 배워 낡은 청바지로 가방과 앞치마를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맛봤고, 올해는 군청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있다. 고산초등학교 옆 카페 ‘스페인 아오라’에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은 그가 꼽는 최고의 소소한 행복이다.

남편을 따라 원수선마을에서 산골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다. 그에게 부녀회 활동은 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 통로였다. 마을 행사에 보이지 않는 어르신이 있으면 직접 집까지 찾아

가 안부를 챙기는 보순 씨의 살가운 성격 덕분에, 원수선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정이 흐르는 곳으로 통한다. 또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로 한 달에 한 번 반찬 봉사를 나가고, 직접 발효한 요리를 이웃과 나누는 일은 이제 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즐거움이 되었다.

올해는 부녀회장으로서 맞는 마지막 임기다. 그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진 것 나누면서 정답게 지내고 싶다”며 소박한 다짐을 전했다. 붉게 익은 토마토즙에 정성을 담아내듯, 홍보순 부녀회장이 원수선마을에 채워온 따뜻한 나눔의 마음은 올봄에도 마을 곳곳에 달큰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



## 섬세한 가락에 매료 완주 우도 농악 닦아온 풍장꾼

### 유재환 어르신

원수선마을은 예로부터 풍장이 활발한 곳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물어 마을 가장 안쪽으로 향했다. 길 끝에 자리한 집 뒤로 이어진 언덕으로 올라가자 고즈넉한 소나무 그늘에서 마늘밭 풀을 매고 있던 유재환(76)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다. 흙물은 손을 툭툭 털며 반겨준 재환 어르신은 완주농악단장을 지냈을 만큼, 이 지역 농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토박이 풍장꾼이다.

유재환 어르신의 풍장 인생은 1981년 마을 어른의 소개로 좌도 농악 강철원 단장을 만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산간 지역인 비봉은 빠르고 상모 높음이 화려한 좌도 농악을 주로 치던 곳이었다. 2년간 좌도 농악을 배우던 재환 어르신은 단장의 권유로 1983년경 이리 농악을 접하며 완주 좌도 농악 중심의 풍악에서 선구적으로 우도 농악의 길을 걷게 됐다.

당시를 떠올리며 재환 어르신은 “느린 가락 사이사이 섬세하고 기교 넘치는 장구 소리에 빠졌다”고 말했다. 장구 명인 김형순 선생에게 배운 가락은 듣는 이와 치는 이 모두를 홀리는 마력이 있었다.

1985년 이리 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유재환 어르신을 비롯한 완주 농악인들의 참여와 후원이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다. 이후 그는 완주농악단을 이끌며 완주 곳곳에 우도 농악을 알리는 데 열정을 쏟았다. 세월이 흘러 상추 농사도, 감나무밭도 세를 주고 소일거리로 마늘밭을 돌보지만 풍장과의 연줄만큼은 여전히 팽팽하다.

“요즘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치지는 못하지. 그래도 순길리 사람들한테 장구 선생 소개해주고, 먼이나 전주에서 큰 행사가 있어 도와 달라고 부르면 가곤 해. 완전히 손에서 놓을 수가 있나.”

재환 어르신의 말에 풍장에 대한 여전한 애정이 묻어났다. 비록 무대 위 신명 나는 놀음은 뜸해졌을지 몰라도 수선리 깊은 골짜기까지 흐르는 바람에는 그가 평생 일궈온 섬세한 가락이 실려 있는 듯하다. 🍃



마늘밭 풀을 매던 유재환 어르신은 이 지역의 농악의 역사를 만들어온 풍장꾼이다.

## 자연이 살아있는 마을 마음껏 놀아야죠

### 마을에 등지 튼 생태놀이터 낙낙희

지난해 11월,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배우는 공동체 공간 ‘생태놀이터 낙낙희’가 비봉면 원수선마을로 터를 옮겼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어울려 놀이와 생태 활동을 이어가는 이곳은 12월 첫 생태놀이터 축제를 열어 마을과 인사를 나눴다.

축제에서는 놀이올림픽과 불 마스터 대회, 공동 식사, 장기자랑 등이 이어지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뛰고 웃는 시간이 펼쳐졌다. 모두가 어울려 생태놀이터의 시작을 알린 자리였다.

넓은 흙마당과 대추나무, 개복송아, 블루베리 나무가 자리한 이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생태놀이터 낙낙희는 원수선마을에서 첫 겨울을 보낸 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넓어진 공간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경험하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놀이와 생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생태놀이터 문화기획자 윤혜진 씨는 “자연이 살아있는 원수선마을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배우는 생태놀이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액운은 활~활 태우고 앞길은 환하게 밝히소서

## 용진읍 정월대보름 화합 한마당

3월 3일 용진읍민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화합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등 민관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이번 행사는 용진 풍물패와 농악단의 신명 나는 가락으로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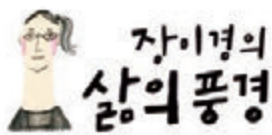
행사는 풍년 기원 제례를 시작으로 주민들은 달집에 정성껏 소원지를 매달아 액운을 쫓고 서로의 건강을 빌었다. 이후 정성껏 준비한 찰밥 등 대보름 음식을 나누며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집태우기 외에도 박 바가지 밝기,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세시풍속 재현을 넘어 용진읍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사진 제공: 용진읍 이호연



# 그저 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소자(小子)



화산면 라복마을 박일진 이야기

-2월 호에 이어 계속

1994년 박일진 씨는 무소유와 영성 수련을 실천하는 공동체 '전원살림마을'의 수련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무소유 공동체 생활을 2년 동안 했죠. 수련생들 뒤치다꺼리하고, 애들 수련생들 오면 같이 놀아주고 그랬죠. 여태권 목사님, 한상렬 목사님도 그때 만났죠. 저는 세상을 떠나 할머니처럼 구도자의 길을 걷고자 했어요. 수행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죠. 할머니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있었는데 그분의 자연과 우주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피폐했던 몸과 마음을 위로받았던 시절이었죠. 달님(정현순)은 어찌 알게 되었냐면 제가 91년 수배생활 할 때 우리 달님이 광주 발산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곳에 저를 숨겨주셨죠. 그 후 제가 감옥 갔을 때 달님이 제 옥바라지를 해줬죠. 출소해서 힘들어할 때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준 분이 달님이었죠. 전원살림마을에서는 이름으로 안 부르고 자신 스스로 별명을 지어서 그 별명으로 서로를 불리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어서, 작은 것에 집중하고 담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자'라고 지었죠. 우리 집사람은 별칭을 달님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그때 만나서 그렇게 서로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달님, 소자가 익숙하죠. 수련공동체 들어가서 생활



달님(정현순)의 진두지휘 아래 아침을 차리고 있는 소자(박일진).

하던 중 불꽃이 된 거지. 그래서 달님이랑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일단 가족이 생기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결혼하게 되면서 공동체에서 나오게 됐어요.”

### 비봉면 봉산마을에 터를 잡다

91년에 말에 민주화운동으로 수배 중이었던 소자와 그를 숨겨주었던 빈민교회 목사 달님은 94년에 다시 만났고 97년 전주 고백교회에서 한상렬 목사의 주례로 식을 올리게 된다. 그해 완주 비봉면 봉산마을로 이끈 이는 여태권 목사였다. 급히 살 집을 찾느라 다 쓰러져 가는 초가삼간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 집이 껍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집 뒷산의 대나무를 베어다가 엮어서 담장을 수리하고 무너져가는 집을 다듬어 갔다. 진달래 따다가 술을 담고 효소를 담아 이웃들에게 나누며 담담하고 소박한 신혼생활을 누렸다. 치열한 투쟁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구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다.

“저는 사회활동은 안 하겠다, 마음먹고 시골로 들어왔는데 어르신들이 새벽 5시 쯤 방문을 두



드려, 우린 자고 있는데. ‘어이 뭐해? 일어났어? 우리 저기서 뭇 좀 할라는데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젊고 힘이 남아도니까 부르면 거침없이 무조건 갔죠. 그것이 소문이 났는가, 뭘 일만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동네 머슴이었죠.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인지 사회를 멀리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살다가 일종의 생계,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축의금으로 딱 천만 원이 있었는데 1년 생활하고 나니 우리 수중에 남은 돈이 딱 이백만 원이에요. 마냥 논 것도 아니거든요. 나락농사, 수박농사 나름 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내년에 뭘 먹고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인덕이 참 좋으신 분이예요. 광주 빈민교회 목회자로 활동하던 당시 전남대, 조선대를 중심으로 의대, 간호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 청년들이 다 커서 의사, 간호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새날의원을 만들고 지역공동체 의료 활동을 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을 우리 집사람 정착하는 데 도와주겠다고 후원해준 거죠. 그래서 그 후원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낸 투박한 진심이 공동체 회복의 밑천이 되었다. 손을 베어가며 익힌 기술은 단순한 육가공법이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민이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는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오랜 시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신뢰를 쌓아온 조합원들의 땀방울은, 2012년 전라북도 제1호 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세우는 가장 단단한 밑천이 되었다. 60명으로 시작한 조합원은 현재 325명까지 늘어났으며, 박일진 씨는 총무 이사를 거쳐 2025년 대표이사로서 조합의 설계를 도맡고 있다.

사실 그는 경제관념이 무척 부족한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돌아봐도 세상살이보다는 산사(山寺)의 스님 같은 성정에 더 가까웠다. 처음 소를 키우게 됐을 때도 빛은 여전했지만 축사를 갖추고 아르바이트로 사료값을 대고 있으니, 마음만큼은 이미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완주라는 마을이 아니었다면 진즉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고마움에, 이제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앞섰던 젊은이였다. 최근 달남과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지역 일에 뛰어들며 보람을 찾던 그 시각, 달남은 타들어 가는 속을 달래고 있었다. 남편은 "이 정도면 되었다"며 밖으로 돌았지만, 달남은 여전히 남은 빛과 완전한 자립을 걱정하며 현실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박일진 씨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게를 묵묵히 견뎌준 아내 '달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의 전문가이지만, 아내 곁에서면 그는 다시 소박하고 순수한 '소자'가 된다.

이른 아침, 소들의 끼니를 모두 챙기고 나서야 축사 한편에서 달남이 준비한 따뜻한 생각차를 나눠 마신다. 소들이 콧감을 내뿜으며 여물을 씹는 소리가 아득하면서도 편안하게 들려온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만함이 차오른다.

작별 인사를 건네려는데 달남이 수줍게 아침 식사를 권한다. 이토록 이른 아침에 타인의 집에서 아침을 함께하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낯선 경험이다.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요구르트와 사과, 정갈한 밑반찬과 몽근하게 끓여낸 누룽지가 올랐다.

소밥을 줄 때의 손길은 고요한 명상 같았다면, 사람 밥을 차려내는 부부의 움직임 또한 그 결이 다르지 않은 명상 같다. 소밥과 사람 밥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 어느새 그들의 삶은 소와 사람, 일과 일상이 경계 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이웃들에게 상의를 했죠. 그때 여목사님의 권유로 울곡리에서 소를 키우게 된 거죠.”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탄생

그 당시 여태권 목사의 권유로 '무공해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힘들게 지은 쌀을 헐값에 넘기기 억울해 직접 방아를 찧어 지인들에게 제값에 판 것이 시작이었다. 이 직거래가 소문이 나며 주변 농가들이 동참을 요청해왔고, 그것이 '땅기운작목반'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는 판로가 없어 필자가 직접 1톤 트럭을 몰고 광주, 전주 등을 다니며 무보수로 배달하는 고생을 자처했다. 이후 '한울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등과 연결되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IMF로 소값이 폭락하며 축산 농가들이 절망에 빠졌던 1998년 무렵, 멈춰 섰던 완주한우영농조합을 다시 살리기 위해 동참했다. 선배들의 권유로 얼떨결에 총무를 맡아 남은 13명의 농가와 함께 재정비에 나서며 유통과 판로를 고민하며, 농민들이 직접 '칼잡이'가 되어 현장을 지켜



사진 위\_ 박일진 정현순 부부가 살고 있는 화산면 라복마을의 농가주택. 마을 안의 작은 저수지 풍경이 마을에 들어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사진 아래\_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은 기존 방식에서 비롯되는 농가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직거래를 통해 한우를 구매하고 이를 직접 가공해 판매대에 올린다.

(사진 제공: 완주한우협동조합)

# 달콤한 딸기향에 빠진 날

## 제24회 완주삼례딸기대축제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24회 완주삼례딸기대축제'가 달콤한 딸기 향 속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일대에는 빨갭게 익은 딸기 상자를 고르는 사람들과 딸기 디저트를 맛보는 방문객들로 축제 기간 내내 활기가 이어졌다.



완주군과 삼례농협, 완주문화재단, 완주DMO가 함께 마련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우석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삼례 딸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딸기 판매와 먹을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봄 축제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축제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곳은 딸기 직거래 판매 부스였다. 산지에서 바로 가져온 신선한 딸기를 직접 고를 수 있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딸기는 등급에 따라 1kg 기준 보통 5,000원, 상 8,000원, 특 11,000원에 판매돼 많은 사람들이 딸기 상자를 들고 축제장을 나섰다. 익산에서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최성빈(27) 씨는 "삼례 딸기가 유명하다고 들어 가족들과 함께 익산에서 왔다"며 "품질 좋은 딸기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벌써 세 껍이나 구매했다"고 웃었다.

딸기 판매 부스 못지않게 방문객들로 붐빈 곳은 음식 부스다.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음료, 디저트가 축제장을 채웠다. 딸기 휘낭시에와 딸기 에이드, 따뜻한 딸기 빵쇼, 딸기 마시멜로우 등 달콤한 메뉴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음식 부스에서 디저트를 준비한 카페 헤이니 이혜인 사장은 "축제 3일 내내 준비한 디저트가 빠르게 품절됐다"며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썬독쿠키를 활용해 만든 '두바이 초코 딸기범벅'을 축제 판매용으로 준비했는데 재구매를 위해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2일차보다 3일차에는 판매 수량을 더 늘려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체험존 역시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딸기 키링 만들기, 딸기 떡 만들기,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먹고, 만들고,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러브스토리 오정선 대표는 "딸기축제에 맞춰 딸기 캐릭터가 들어간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며 "특히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반응이 좋아 체험 부스가 계속 붐볐다"고 말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됐다. 음식 부스 이용이나 체험 프로그램, SNS 미션에 참여해 스탬프를 모으면 딸기 풍선과 여행용 편의용품 세트를 받을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더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완주삼례딸기대축제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체험과 먹을거리, 공연을 함께 즐기는 봄 축제로 자리 잡으며 삼례 딸기의 우수함을 알리고 지역 농가에도 활력을 더했다. 🍓



직거래 부스에서는 신선한 딸기를 직접 고를 수 있어 방문객들이 붐볐다.



딸기축제 행사장에 모인 인파 (위 사진\_ 완주문화재단 제공)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가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 딸기 컵케이크, 딸기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아이들과 가족 나들이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봄기운이 스며드는 3월. 완주군 곳곳에서 다양한 소식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행사와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살펴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 완주에서 즐길 거리 여기서 확인해 보자.

## 2026년 전북 청년수당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의 구직활동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18~39세 재직 및 구직 청년이며, 고등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주소지를 타 시·도나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은 지역정책 지원사업 ttd.ezwe.com, 청년활력수당 jbyouth.ezwe.com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63-290-3238로 문의하면 된다.

##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 삼계문화예술촌 전시



일러스트레이터 밥장(Bob Chang) 작가의 전시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이 삼계문화예술촌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희망과 악몽, 미래와 트라우마, 기대와 후회 등 서로 다른 감정이 뒤섞인 '꿈 같은 장면'을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그림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제1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63-290-3862로 문의하면 된다.

##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완주군이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9~20세(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로 확대됐으며 지원 금액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기존 공연·전시에 더해 영화 관람도 이용 가능해졌고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처도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완주군은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1차 발급을 진행하며, 발급받은 패스는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생애 1회 지원 사업으로 2025년 패스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봄 냄새 나는 3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3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3월 14일 (토) 오후 2시	아이 캔 스피크	드라마	12세 관람가
3월 21일 (토) 오후 2시	개들의 섬	애니	전체 관람가
3월 28일 (토) 오후 2시	이처럼 사소한 것들	드라마	12세 관람가

####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3월 31일 (화) 오후 7시	인 디아일	드라마	15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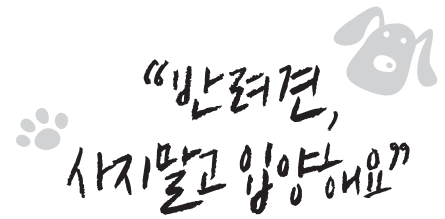


## 섬진강-오백리 사계를 그리다 지역작가 공모전시

삼례문화예술촌 '2026 명품관광지 지역작가 공모전시' 두 번째 전시로 김중현 작가의 '섬진강-오백리 사계를 그리다'가 열린다. 전북 진안 데미샘에서 발원해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섬진강은 예로부터 '두꺼비강',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 온 강이다. 김중현 작가는 섬진강을 직접 탐방하고 관찰하며 사계절의 풍경을 한국화 실경산수로 담았다. 작품을 통해 섬진강의 아름다움과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는 자연의 가치를 전한다. 전시는 2026년 5월 1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열리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화산면 주민소모임 모집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화산면에서 이웃과 함께 취미를 나누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2026 주민소모임'을 모집한다. 이번 주민소모임 사업은 화산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함께 활동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와 등산, 손뜨개, 기타 연주, 독서 등 건강·스포츠, 문화예술, 돌봄, 학습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화산면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며, 선정된 소모임에는 팀당 최대 100만 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활동비는 강사비와 재료비, 다과비 등 모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이며, 선정된 소모임은 3월 24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총 20회 이상 활동해야 한다. 또한 소모임 참여자들은 3월 25일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7월 11일 중간교류회, 11월 성과공유회 등 필수 일정에도 참여해야 하며, 각 모임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신청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 공고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wanjucoop@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팀 063-905-5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릴리의 5남매 가족을 기다립니다



작년 8월 기존 완주 별빛유기동물지킴이 보호소 폐쇄 과정에서 타 센터로 이동한 유기견 릴리가 임신 상태였음이 확인되어 센터에서 6마리의 아기들을 무사히 출산했다. 릴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냈고, 현재 아기들은 생후 6개월이 되어 해외 입양을 준비 중이다.

첫째 제롬은 중성화를 마치고 3월 26일 워싱턴으로 출국 예정이며, 나머지 5마리도 입양 프로필이 등록되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중성화, 접종, 출국 준비비와 쉼벌·목줄 등용품 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아이들이 무사히 새 가족을 만나 입양길에 오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후원은 농협 351-1161-4972-13(별빛유기동물지킴이)로 가능하다.

## 정책과 청년을 잇는 ‘컨트롤 타워’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본격 가동



왼쪽부터 이수현 운영매니저, 최형욱 센터장, 성재원 선임매니저

올해 1월 1일 봉동읍에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성장을 뒷받침할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동안 삼례, 이서, 고산 각 지역 거점공간으로 분산되었던 청년정책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것이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최형욱 센터장은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완주군청년이장단(구이면) 등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베테랑 활동가다. 지역과 청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그는 이번 센터 개소를 두고 “오랫동안 청년활동가로 활동하던 사람이 실무를 맡게 되어 다들 모범 사례라고 말씀 해주신다”며 웃어 보였다. 여기에 소상공인 창업경험이 있는 성재원 선임매니저와 디자인 전공을 살린 이수현 운영매니저가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

센터 B1층은 밤 9시까지 운영되는 북카페로 문턱을 낮췄고, 2층은 대강당과 상담실 등 소통 공간을 갖췄다.

최 센터장은 “기존 거점공간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면, 우리 센터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정체성을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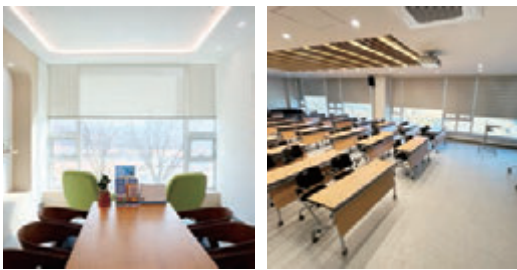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센터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

진한다. 완주의 지역자원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완주형 로컬브랜딩 사업’, 진로와 심리 지원을 돕는 ‘청년미래설계학교’,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서 창업까지 고민해보는 ‘완주군 청년문제 해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 정책을 알리는 ‘찾아가는 청년 소통학교’를 통해 정보 소외 지역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각 지역 거점공간과의 유기적인 협업도 놓치지 않는다. 성재원 선임매니저는 “거점 매니저들과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을 보완하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운영매니저 역시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청년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단장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소 초기인 만큼 센터의 가장 큰 숙제는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다. 최 센터장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봉동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인구 유출이나 고독한 청년 문제 등 현장의 고민이 깊지만, 유입되는 청년과 기존 청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보]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주소\_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48, 2층  
운영시간\_ (화~금) 10:00~21:00  
(토) 9:00~18:00  
\*매주 일, 월 휴무  
문의\_ 063) 262-1480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하야시 기린 글 | 쇼노 나오코 그림 | 김소연 옮김 | 천개의바람

소문의 특징이 있다. 먼저, 대부분 근원지를 알지 못한다. 둘째, 말이 불어난다. 셋째,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넷째,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소문을 더 신뢰한다. 다섯째, (피해를 보는 누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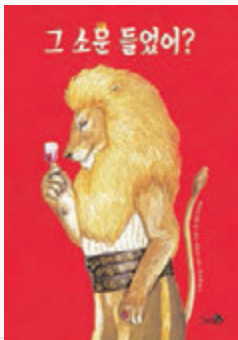
흔히 소문은 진실과 대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문에 빠진 사람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소문은 '말'로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말하는 이의 의도가 있게 마련이고, 의도는 판단과 의견을 포함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성향, 장소, 시점, 사회적 위치 등 소문을 만드는 요소가 많지만, 맨 처음 들은 사람이 천연할지, 사실을 확인할지에 따라 소문이 결정된다. 여기서 진위를 가리기보다 관계에 얽혀 말들을 더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소문이 될 위험이 높다. 맨 처음 '말'에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말들은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작은 입구를 통해 몸집이 커지게 된다.

조심하려는 것 중 하나이지만 나도 역시 그렇다. 내 입을 통해 나온 것들은 진실에 가깝다고 착각한다. 착각임을 알게 된 후라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데, 책임 추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문이 모두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긋난 이해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대상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공동체에 균열을 주거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금긋기를 피할 수 없다. 소문으로 만들어진 '말'은 말하는 이의 위치와 권력에 따라 바로 잡기 어려운 없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진위보다 자기 이익과 가까운 관계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폐해진 땅에는 이제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스포이지만 책의 마지막 문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대로라면 과연, 소문은 누구에게 이익일까.

그 소문 들었어?



소문은  
먼저 슬그머니 다가오지만  
진실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

### 감나무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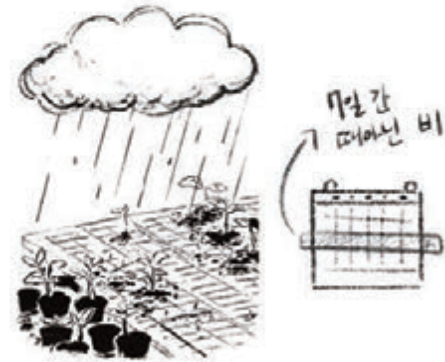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매일설레

#81 자연텃밭



오백배!  
이더로 허브와  
깻알, 가지, 오이를  
자급사족한다.



자연이 알아주는 내 계획...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야만의 시대에 듣는 추모와 위로의 노래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7) 코언의 [할렐루야]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분노와 절망의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전쟁 폭력이 난무하다니! 미국의 폭격으로 165명의 어린 여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폭탄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던 아이들이 전쟁의 통계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늘 거대한 명분을 앞세웁니다. 안보, 민주주의, 심지어는 평화를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의 아래에는 언제나 여지없이 망가진 일상의 삶이 있고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은 안전한 곳에 있고 폭탄은 늘 가장 약한 사람들 위에 떨어 집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인간이라는 종족이 과연 문명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전쟁을 설명하는 정치의 언어는 인간의 슬픔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죽은 아이들을 설명하는 데 전략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 이러한 야만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노래일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노래 말입니다.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 ("Hallelujah")입니다. 이 노래는 캐나다의 시인이자 가수 코언(Leonard Cohen)이 남긴 가장 깊은 음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는 원래 히브리어로 "신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코언이 노래하는 할렐루야는 교회에서 울려 퍼

지는 환희의 찬가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의 할렐루야는 상처 입은 인간이 겨우 입술로 내뱉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노래는 성서의 인물 다윗이 연주하던 신비로운 화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코언은 인간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비로운 화음을 듣지 못합니다. 조화를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부서진 할렐루야"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신앙과 삶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실패하고 정의도 흔들리며 세계는 자주 잔혹합니다. 전쟁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거룩한 찬양'이라는 말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코언은 거룩한 할렐루야 대신 '부서진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믿음의 노래가 아니라 의심과 슬픔 속에서 겨우 견뎌내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읊조림입니다.

전쟁의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의미가 더 또렷해집니다. 폭격 속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고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실에서 죽어간 아이들. 그들에게는 거창한 신학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강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부서졌기 때문에 부르는 탄식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음악 속에서는 잠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이 끝없는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 인간에게는 아직 노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 한 곡을 넘어 현대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영혼의 언어로 자리매김한 찬가입니다. 이 노래는 코언의 전체 음악세계 안에서도 정점의 위치를 차지하며 동시에 그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찬바람을 뚫고 매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풀들이 다시 올라오듯 우리들 마음에도 희망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 희망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노래 한 곡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노래가 존재합니다. 상처 입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부서진 세계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노래. 그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는 잠시라도 인간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불러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제10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식

3월 10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공감마당에서 제10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식이 열렸다.

이번 입교생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10세대, 19명이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모두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라는 하나의 꿈을 안고 완주를 찾았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육 과정 안내와 함께 귀

농귀촌 멘토들과의 첫 만남과 세대별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다.

입교생들은 1년간 센터에 거주하며 기초 영농교육, 농장 실습, 멘토링 등 농촌생활을 체험한다. 완주군은 미래행복 실습농장과 연계해 작물 재배·가공·유통까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사진 제공 :완주군

# 꽃망을 대신 터진 건

농/촌/별/곡



차 남 호

여느 해 같으면 꽃잎을 열었어야 할 뜰앞의 매화가 아직 저 모양이다. 망울이 좀 부풀긴 했지만 며칠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러는 사이 터지라는 꽃망울은 안 터지고 난데없는 포탄이 마구 터지고 있어 걱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하는 얘기다.

미국의 기만적인 기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초등학교를 미사일로 폭격해 2백명 가까운 아이들이 애꿎은 목숨을 잃은 사태다. 날이면 날마다 '국제강패 팔뚝자랑'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가 이를 이란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다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양아치' 같은 면모를 드러냈다.

미국만 문제냐고? 미국의 실제목표가 중국견제

니, 석유확보니, 국내정치용이니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습 자체가 명분이 없어 보인다. '핵개발 저지'를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란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들먹이지만 대체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세계 주류사회가 플라톤과 함께 최고의 철학자로 떠받드는 칸트는 2백년도 더 전에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헌정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선 안된다"고 언명한 바 있다. (1795년, <영구평화론>) 신권통치와 최근의 인권탄압 등 이란의 정치체제가 후진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란인 스스로 풀어야 할 몫이다. 유명한 프랑스 정치사상가 토크빌(실제로는 메스트르라고 한다)도 그랬다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어디 이란뿐이겠나.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긴 미국도 그렇고, 우리 또한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지 싶다.

어쨌거나 이번 전쟁의 피해는 이란과 중동권에만 그치지 않고 전세계로 파급돼 우리에게도 그 불똥이 튈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산업과 서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당장 농사철을 코앞에 둔 농촌에도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요즘 농사 농기계 없이 돌아갈 수 없으니 기름값이 오르면 고스란히 생산비로 옮겨가게 돼 있다. '관행농'의 경우 비료는 필수재인데 질소비료 제조공정의 주

원료가 바로 천연가스다. 그 천연가스가 이번 전쟁 여파로 '공급쇼크'를 일으켜 가격이 65% 급등하는 양상까지 보였다고 한다. 이 또한 비료값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쌀값이며 농산물 가격은 이런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못 된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정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얘기가.

그러니 이 노릇을 어찌할 것인가. 단언컨대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 따위는 없다. 하여 오늘 당장이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미 때늦은 일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 칸트는 이런 맥락에서 '평화조약'이 아닌 '평화연맹'이라는 조직적 대안을 제시했다. 칸트는 애초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국제국가로서 세계공화국을 상정했지만 현실성 면에서 국제연맹을 제시했고 이것이 오늘의 국제연합(UN)으로 이어졌음은 알려진 대로다. 그러나 그 유엔은 평화구현과 멀기만 하다. 미국의 몽니 앞에 허물어져 제구실을 못 하는 게 현실 아닌가. 그러니 한낱 변방의 농사꾼인 나로서는 평화연맹보다 차라리 존 레논이 처연하게 부른 <이미진>에 실린 그 세계가 훨씬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꿈꾸어보자. 신의 나라도 지옥도 하늘도 국가도 죽음도 종교도 가진 자도 탐욕도 배고픔도 없는 세상을. 그리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꾸면 꿈은 이루어지리라." /비봉 염암마을

## 완주군의회에서는

### 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특별법 제정 촉구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3월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비법정 도로로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행로임에도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수·보상 비용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편입 및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 구축 ▲도시재생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비법정 도로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완주군**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 취 제 · 글 윤하나, 성다연
- 편 집 장혜영, 이윤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원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 한국형 퀵스타트 (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채용연계형 교육생 모집



교육 수료 후 취업시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지급

# 2026 완주 꿈의 극단 단열을 모집합니다.

꿈의 극단 '완주'는 아이들이 연극과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며 성장하는 연극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접수기간  
2026. 2. 11.(수) ~ 3. 20.(금) 18:00까지

모집대상  
완주군 인근 거주하는 아동  
초등학교 1학년~6학년/완주군 거주 우선

모집인원  
30명

교육일정  
2026. 4. 4.(토) ~ 11. 28.(토) / 매주(토) 14:00~17:00  
\* 결과발표회 포함

교육장소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층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문의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모집분야	기업명	모집부분	담당업무	자격요건
	(주)DHE테크노벨리지점 (주)골드밴	생산품질 검사원	자동차 부품 품질검사	무관(신입/경력)
		생산부품 조립원	타차(외바디, 냉동탑)조립	

※모집부분, 교육생에 따라 일정 조율

교육기간  
2026년 3월 ~ 7월

교육유형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기본교육 (40시간)	직업기초능력 생산 및 제조분야교육 품질 및 검사분야교육 안전환경법규교육 법정의무교육	이론	(주)전북산학융합원 (완주군 관내)
현장교육 (100시간)	자동차 부품 조립 및 품질검사 공정	실습	(주)DH, (주)골드밴

신청방법  
서류제출 (사)전북산학융합원 완주고용지원단 이메일 wanjukoyong@naver.com  
고용24 이메일 입사지원  
제출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사업참여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문의  
사)전북산학융합원 완주고용지원단 063-263-0042, 0225

